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고광명*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대상과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본 연구는 《기업가의 개인이력서》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특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 기업가의 출생 시기는 조상신분이 농업이고 부친직업이 상업인 경우만 1900년~1909년 시기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기업가의 가정 상황은 조상신분이 농업이고 부친직업이 상업인 경우만 가정상황이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본 기업가의 창업 동기는 조상신분이 농업이고 부친직업이 상업인 경우만 성공과 출세를 위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본 기업가의 학력은 조상신분이 농업 외이고 부친직업이 상업인 경우만 학력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 기업가의 경영자 유형은 조상신분이 농업이고 부친직업이 상업인 경우만 전문경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기업가의 출신성분에 따라 기업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주제어: 일본, 기업가, 사회적 배경

* 제주교육대학교 연구교수.

I. 서 론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후발 자본주의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다. 이는 봉건시대의 상인들이 메이지유신 이후의 근대화에 편승하여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이덕훈 2003, 1). 더욱이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혼상재(士魂商才)와 실업가정신(實業家精神)으로 산업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이덕훈 1998, 75-76). 하지만 일본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가능케 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에도(江戶)시대 이래의 유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일본의 독특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구체적인 양태를 보여왔다. 즉 일본의 전전(戰前) 기업가(경영자)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면서 다수의 기성재벌(旣成財閥)들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강신일 · 이창원 1997, 88).

보몰(Baumol 1993)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기업가정신의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공급이나 배분구조를 결정하는 데는 그 사회의 상대적 평가시스템(보상체계, 역할인식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본사회는 근대 이전에는 사업이나 상인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대 이후 무사계급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여러 사상가에 의한 실업가 중심의 이념과 기업가활동에 대해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기업가들의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아졌다(강신일 · 이창원 1997, 88).

한편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일본 기업가들이 어떠한 개인적, 사회적 동기로부터 경제계에 투신하게 되었으며, 사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업가를 탄생시킨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경과에 따른 사회계층의 변화에 대한

그렇다 할만한 국내 연구자에 의한 실적도 많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근대적 경영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계층에 속하였으며, 또는 학력, 가정환경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개인적 배경 하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鳥羽欽一郎 1988, 1).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메이지(明治)시대에서 다이쇼(大正)시대까지 일본 기업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층과 그 개인적 배경이 무엇이며,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의해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鳥羽欽一郎(1988)이 176명을 대상으로 기업가(경영자)의 실태를 조사한 『日本における企業家·経営者』의 목록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러한 과제를 설정한 이유는 최근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기업가들에게 바람직한 기업가적 활동을 모색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근대 일본의 경제를 발전시킨 각 산업의 기업가들의 등장을 파악하고, 이들의 등장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일본 기업가의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연구대상 및 방법을 설정하여,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업가의 개념

기업가(entrepreneur)란 단어의 어원은 "기업에 자본을 대고, 그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기업가라는 용어는 "어떤 일이나 거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성공을 떠맡다(undertaking), 책임지다."라는 뜻의 entreprendre에서 유래되었다(권남훈 외 1999, 39).

나이트(Knight 1921)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기업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였다. 불확실성이 도입되면 의사결정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어떤 주어진 일을 실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물을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은 확률에 대한 무지를 의미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담당하는 것이 기업가라고 생각했다. 커즈너(Kirzner 1973)는 불확실성하에서 조정 등에 따른 경제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내부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협상 및 거래(arbitrage)를 통해 이윤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드러커(Drucker 1985)는 기업가란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또한 변화를 기회로써 이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특유의 수단을 혁신(innovation)으로 보았다. 슘페터(Schumpeter 1991)는 기업가를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기업가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경제발전은 기업가에 의해 주도되며 기업가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고 혁신자이므로 그 기능은 일반적으로 신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발명, 신기술의 개척 또는 기존제품을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하는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 개념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업가의 개념은 근대사회의 복잡한 기업 활동의 제 기능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충분히 음미할 가치가 있는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업가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원을 조정하

고 감독하여 부를 증진시키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은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가가 어떠한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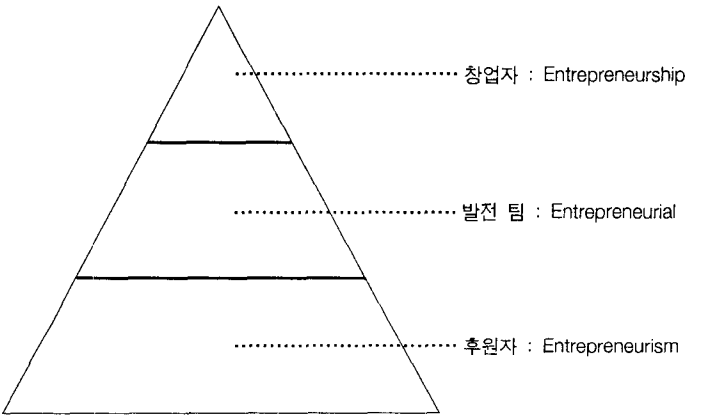
2. 기업가와 기업가활동

기업가는 경영활동의 근본적인 주체가 되므로 기업가의 행위적 특성을 통해 기업가와 기업가활동과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Kourilsky(1995)는 '기업가활동 실시·지원피라미드'(Entrepreneur Implementation and Support Pyramid)를 통해 효율적인 프레임워크(frame work)를 제시하였다(Kourilsky 1995, 12). 일반적으로 기업가형 사회는 세 개의 계층(layer), 즉 창업자(initiator), 발전 팀(development team), 후원자(constituency)로 구성된다. 상위계층은 기업가활동(entrepreneurship)을 수행하는 혁신자로서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위치한다. 이는 기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지원자가 발전 팀이 된다. 그것은 창업자 자신이 아니더라도 창업자에게 가장 강한 친근감을 갖고, 그리고 창업자 비전에 모든 권한을 위임(commit)함으로써 매력을 느끼게 된다. 결국 발전 팀의 어프로치·행동은 기업가적(entrepreneurial)인 것이 된다. 그리고 파리미드의 기초에 알맞은 하위 계층에 후원자가 존재한다. 이 계층은 기업가활동과 기업가행동의 확대를 평가하고, 그들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이 위치(stance)를 '기업가주의(entrepreneurism)'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창업자 수준도 발전 팀 수준과 함께 후원자 수준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자의 관계가 능숙하게 기능하여 기업가형 사회를 실현하게 된다. 이때 본래 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으로 인해

직접 장래의 기업가활동에 기여할 가능성도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러한 후원자 계층의 확대는 기업가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양성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실현을 위해 각각의 수준에 대응할 적절한 기업가교육이 요구되어 진다.

〈그림 1〉 기업가활동의 실시·지원피라미드



자료: Kourilsky, M.L.(1995), *Entrepreneurship Education :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Kau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3.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기업가의 출신성분(조상직업, 부모직업)을 유형화하여 일본 기업가 탄생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데 있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규명보다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 더욱이 최근 한국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 기업가의 사회적 배

경에 대한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쿠퍼 외(Cooper et al. 1987)는 기업가 중에서 부모가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가인 경우가 50%정도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시절 부모가 보여주는 기업가적 기질이 자녀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정환경 요소 중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기업가적 활동의 방향이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쿠퍼(Cooper 1985)에 의하면 기업가들은 제품 또는 시장에 대한 친숙함이나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러한 경험이 많은 기업가는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쿠퍼 외(Cooper et al. 1995)는 창업경험이 있으면 창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알 수 있고 그것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실증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콜린스 외(Collins et al. 1964)에 따르면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특성상 남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며 상당히 개성들이 강하여 교육수준과 반비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와 비슷하게 스튜어트 외(Stuart et al. 1990)는 신생기업의 성과에는 창업경험이 중요하며 기업가의 교육수준은 오히려 성과와 역의 관계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쿠퍼 외(Cooper et al. 1987)는 중소기업의 창업자 890명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66%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교육정도는 기업가의 특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상복(1997)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豊基邑)의 직물산업 중소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행위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사

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직물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은 초창기에 이북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본고장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 직물기업의 소유와 경영주체는 창업자들이 그들의 2세대보다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물기업가들의 사회계층과 생활양식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경제행위도 자산 및 투자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고 논술하고 있다(한상복 1997, 5-32). 김영수(1996)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51개의 표본기업을 분석하여 기업가의 배경적 특성과 기업가적 행동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는 기업가의 객관적인 요인보다는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등 주관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덕훈(2003)은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기업가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을 해명하였다. 전전의 산업계를 대표하던 기성재벌의 붕괴 후에 등장한 새로운 기업경영자의 세 가지 유형, 즉 전문경영자와 창업자형, 준 창업자형 기업가의 등장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등장과정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논하였다(이덕훈 2003, 1-20).

이 외에도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방법론이나 연구목적이 유사한 일본에서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시카와 켄지로(石川健次郎 1974)는 『大人名事典』의 직종란에 실업가라고 기술된 422명(조사항목은 출신, 가족 내 지위, 출생지, 최초 이주지, 교육지역 등)을 대상으로 메이지시대 기업가활동에 대해 통계적 관찰을 시도하였다. 아오누마 요시마츠(青沼吉松 1965)는 최고경영층 420명(조사항목은 거주지와 출생지, 고등교육기관의 배치, 지역별경영자 배출비율, 학력 등)을 추출하여 1965년 전후에 주목된 일본적 경영의 봉건적 특징을 부정하지 않고 공업화와 관련하여 경제주체의 문제를 규명하였다. 일본의 경영층에 대한 경제주체의 근대성, 특히 전문공업화의 관점에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미츠나리 히

로시(滿成 博 1960)는 일본 산업계의 회장, 사장, 경제단체의 대표자 212명(조사항목은 출신, 학력, 업종별학력, 경력 등)을 조사하여 일본의 엘리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비즈니스 엘리트가 거대기업의 톱매니지먼트의 지위에 이르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을 기초로 현대 비즈니스 엘리트가 연공서열제, 교육제도, 기업 내 관료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추적하였다. 히루슈 마이아(Hirshmeier 1964)는 일청(日淸)전쟁 이전에 혁신적인 활동을 행하고 적어도 현저한 성공을 거둔 50명(조사항목은 출생년도, 출신계급, 실무훈련, 업적 등)을 추출하여 메이지시대 기업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는 기초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재벌창업자 이외에도 혁신성과 지도력을 지닌 실업가의 고찰을 통하여 메이지시대 기업가의 일반성에 대해 검증을 행하였다. 아사노 토시미츠(淺野俊光 1980)는 일본 공업화 시대에 적극적인 활동을 나타낸 인물 212명(조사항목은 출생연도, 출신계급, 훈련, 도시, 기업유형 등)을 추출하여 일본 공업화의 기반을 농촌에서 찾아야 한다며 각 계층에서 배출하는 '다원적 공업화(多元的 工業化)'의 입장에서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정부의 기업가적 노력 혹은 재벌의 활동을 일본자본주의 발전의 지주로서 중시하였기 때문에 도시의 대재벌, 지도력 있는 대 실업가에 조사의 초점이 지나치게 편중했음을 인식하였다. 아쇼우 마코토(麻生 誠 1970)는 출생연대별로 각각 127명과 120명의 비즈니스 엘리트(조사항목은 출신, 학력, 경력패턴, 엘리트의 학력구성, 평균연령 등)를 대상으로 사회체제의 폐쇄성과 개방성, 고정성과 유동성을 염두에 둔 사회적 성격의 결정요인, 역할규정에의 영향, 출신계급과 이익의 관계인 '체제엘리트(體制エリート)'의 사회적 출신계층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기업가 연구와 관련하여 기업가정신 등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국내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른 국가와 특징이 대비되는 일본 기업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기업가의 출신성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 기업가적 측면에서 기존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鳥羽欽一郎(1988)이 176명을 대상으로 기업가(경영자)의 실태를 조사한 목록자료를 기본적인 원 자료(raw data)로 하고 있다. 원래 이 자료는 일본경제신문사(1987)가 발간한 『私の履歷書·經濟人(全24卷)』에 포함된 기업가(경영자) 134명과 그 이후 1988년까지의 일본경제신문 지면에 게재된 기업가(경영자), 재계인 42명을 모두 합계한 176명의 개인이력서에 관한 자료이다. 여기서 이용한 『私の履歷書』는 1956년 3월부터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게재한 경제인 관련 기사 등을 연재한 결과물을 모은 것이다. 이 연재는 경제인을 대상으로 1981년 2월에 『私の履歷書』 18권을 정리한 후, 1986년 11월에 6권을 추가하여 총 24권을 간행하였다. 이 24권에 포함된 기업가는 134명이었지만 그 후 鳥羽欽一郎(1988)이 일본경제신문 지면에 게재된 42인을 추가하여 총 176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목록자료이다.

이처럼 본고에서 鳥羽欽一郎(1988)의 목록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첫째, 1864년부터 1916년 사이에 출생한 주요 경제인이 거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출신의 사회계층이나 개인적 배경을 시계

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 기업가(176명)의 목록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시기별로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본특성으로서 추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가별 내용이 개인적 배경을 포함한 가정환경, 교육, 비즈니스 동기 등 외부적, 내부적 요인까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의 목록자료는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7가지 표본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우선 기입하고, 이에 근거하여 명목척도로 측정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2. 연구방법

본 자료는 원래 기업가(176명)로부터 얻은 내용을 Data Sheet로 전기하여 각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구체적 수치와 같은 기본정보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에 수록된 모든 사회적 배경과 관련한 수치를 M/S Excel 프로그램에 Coding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본 기업가의 목록자료를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176명의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가정환경, 동기, 교육 등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목록자료의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04년부터 1976년까지 약 72년 동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주요 대기업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7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조상의 봉건신분인 경우는 본래 士(토족), 農(호농, 농업, 어업), 商(상인), 工(직공), 기타(성직자, 의사, 주조업, 탄광경영, 기타 등)와

같이 5가지로 구분되었으나, 가장 빈도가 높은 농업과 그 이외의 항목을 하나로 하여 '농업과 농업外'로 2개의 범주를 갖는 명목척도로 자료를 변환하였다. ②부친의 직업인 경우는 농민(지주, 소작농), 상업(상인, 대기업주, 회사임원, 은행원 등), 관료(관료, 시도지사, 도의회의장 등 지방공직자), 전문직(교사, 의사, 성직자, 기술자 등), 기타(불명)와 같이 5가지로 구분되었으나, 가장 빈도가 높은 상업과 그 이외의 항목을 하나로 분류하여 '상업과 상업外'와 같이 bi-nominal scale로 변환하였다. 이와 같이 상업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이유는 당시 기업가의 활동 시기를 40~60세로 감안하여 기업가의 부모직업 중에서 상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1900년 이전 조상의 봉건신분보다는 오히려 부친의 속한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③출생 시기별 분포인 경우는 제1기(1864년~1879년), 제2기(1880년~1889년), 제3기(1890년~1899년), 제4기(1900년~1909년), 제5기(1910년~1916년)와 같이 5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가의 출생 시기를 구분한 것은 시대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단지 이러한 구분방법은 일단 연구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구분하기 쉽게 0으로 끝나는 10년 단위로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제1기와 제5기는 각각 14년과 7년의 년수로 구분하게 되었다. ④가정 상황인 경우는 빈곤층(가정 형편이 어려움), 부유층(가정 형편이 윤택함), 기타(관련사항 없음)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다. ⑤창업 동기 유형인 경우는 원래 가업(家業)과 가운의 재흥(再興), 부모와 형제의 부양, 실업가의 성공과 출세, 일본의 장래와 국가공헌, 사회에 대한 책임감·사명감과 같이 5가지 항목으로 제시되었으나, '가업 및 가족 부양', '성공과 출세', '국가공헌과 사회책임'과 같은 3개 항목을 갖는 명목척도로 변환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의 동기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어떠한 표현형식으로든 동기의 어휘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관련된 표현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연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⑥학력 유형인 경우는 본래 초등, 중·실업학교, 제국대학, 고등전문학교, 사립대학과 같이 5개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나,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등과 중·실업학교'를 하나로 묶어 4개 항목을 갖는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⑦경영자 유형인 경우는 창업경영자, 전문경영자, 재벌경영자, 관료전직자, 가업승계자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0.0 version이고,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tab)이다. 특히 일본 기업가의 조상신분과 부친직업과 같은 출신성분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SPSS 통계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파일분할(spilt file)방법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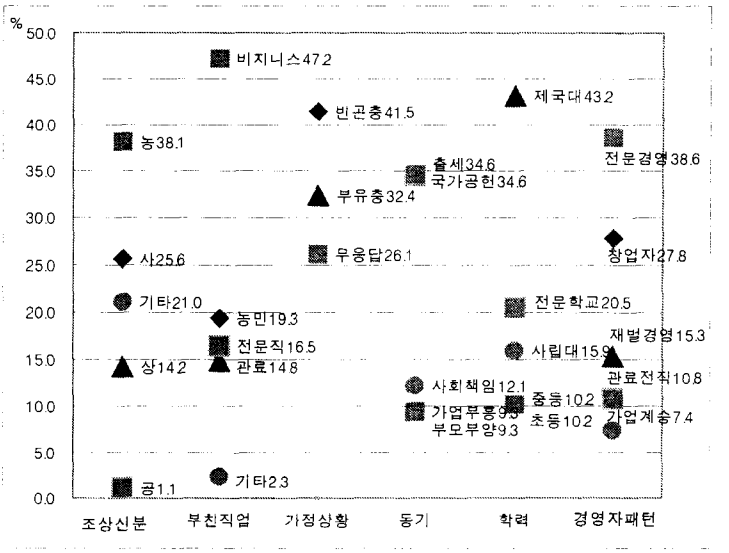
1. 일본 기업가의 표본 특성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본 기업가(176명)의 목록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Exce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ding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전반적인 경향과 항목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2〉는 일본 기업가들의 표본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일본 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 즉 조상의 봉건신분은 농업 38.1%, 부친직업은 상업 47.2%, 가정상황은 빈곤 41.5%, 동기 유형은 출세와 국가공헌 34.6%, 학력은 제국대학 43.2%, 경영자 유형은 전문경영자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위의 목록자료에 근거하여 기업가들의 배경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출신성분을 분류하여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조상의 봉건신분인 경우는 비율이 가장 높은 농업(38.1%)인 경우와 농업 이외인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부친직업인 경우도 비율이 가장 많은 상업(47.2%)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일본 기업가(176명)를 4가지 유형(Ⅰ유형 : 봉건신분은 농업이고 부친직업은 상업인 경우, Ⅱ유형 : 봉건신분은 농업이고 부친직업은 상업外인 경우, Ⅲ유형 : 봉건신분은 농업外이고 부친직업은 상업인 경우, Ⅳ유형 : 봉건신분은 농업外이고 부친직업은 상업外인 경우)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Ⅰ유형은 25명, Ⅱ유형은 42명, Ⅲ유형은 58명, Ⅳ유형은 51명으로 각각 분류되었으며, 특히 이 4가지 유형 가운데 Ⅲ유형에 58명이 해당되어 출신성분별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 일본 기업가의 표본 특성



2.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특성

1) 출생 시기별 특성

일본 기업가의 출신성분 유형에 따른 출생 시기별 특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Ⅰ유형의 기업가들은 제4기(1900~1909)에 출생한 경우(40.0%)가 다른 시기에 출생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Ⅱ유형의 기업가들은 제3기(1890~1899)에 출생한 경우(38.1%)가 다른 시기에 출생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Ⅲ유형의 기업가들은 제2기와 제3기에 출생한 경우(각각 29.3%)가 다른 시기에 출생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Ⅳ유형의 기업가들도 제3기에 출생한 경우(43.1%)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 일본 기업가의 출생 시기별 특성

구 분		Ⅰ유형(n=25)	Ⅱ유형(n=42)	Ⅲ유형(n=58)	Ⅳ유형(n=51)
		봉건신분: 농업 부친직업: 상업	봉건신분: 농업 부친직업: 상업外	봉건신분: 농업外 부친직업: 상업	봉건신분: 농업外 부친직업: 상업外
출생시기	제1기 (1864-1879)	-	2(4.8%)	1(1.7%)	4(7.8%)
	제2기 (1880-1889)	5(20.0%)	9(21.4%)	17(29.3%)	7(13.7%)
	제3기 (1890-1899)	6(24.0%)	16(38.1%)	17(29.3%)	22(43.1%)
	제4기 (1900-1909)	10(40.0%)	13(31.0%)	14(24.1%)	15(29.4%)
	제5기 (1910-1916)	4(16.0%)	2(4.8%)	9(15.5%)	3(5.9%)

2) 가정 상황별 특성

〈표 2〉에서 4가지로 분류한 출신성분 유형에 따른 가정상황의

특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유형인 경우는 가정상황이 부유한 경우(40.0%)가 빈곤한 경우(3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인 경우는 28%이다. Ⅱ유형인 경우는 가정상황이 빈곤한 경우(57.1%)가 부유한 경우(1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인 경우는 28.6%였다. Ⅲ유형의 경우는 가정상황이 빈곤한 경우(41.4%)가 부유한 경우(31.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무응답인 경우가 27.6%였다. Ⅳ유형의 경우는 가정상황이 빈곤한 경우(33.3%)가 부유한 경우(23.5%)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만 무응답인 경우가 43.1%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2〉 일본 기업가의 가정 상황별 특성

구 분		Ⅰ유형(n=25)	Ⅱ유형(n=42)	Ⅲ유형(n=58)	Ⅳ유형(n=51)
		봉건신분: 농업 부친직업: 상업	봉건신분: 농업 부친직업: 상업外	봉건신분: 농업外 부친직업: 상업	봉건신분: 농업外 부친직업: 상업外
가정상황	빈곤층	8(32.0%)	24(57.1%)	24(41.4%)	17(33.3%)
	부유층	10(40.0%)	6(14.3%)	18(31.0%)	12(23.5%)
	무응답	7(28.0%)	12(28.6%)	16(27.6%)	22(43.1%)

3) 동기 유형별 특성

〈표 3〉에서 4가지로 분류한 출신성분 유형에 따른 동기 유형의 특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유형의 창업 동기는 개인의 성공과 출세인 경우(28%)가 다른 창업 동기인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Ⅱ유형의 창업 동기는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경우(28.6%)가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경우(26.2%)보다 높게 나타났다. Ⅲ유형의 창업 동기는 국가 및 사회

에 공헌한 경우(31.0%)가 가업 및 가족부양을 위한 경우(15.5%)나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경우(15.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Ⅳ유형의 창업 동기는 국가 및 사회공헌을 위한 경우(33.3%)가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일본 기업가의 동기 유형별 특성

구 분		Ⅰ유형(n=25)	Ⅱ유형(n=42)	Ⅲ유형(n=58)	Ⅳ유형(n=51)
		봉건신분: 농업 부친직업: 상업	봉건신분: 농업 부친직업: 상업外	봉건신분: 농업外 부친직업: 상업	봉건신분: 농업外 부친직업: 상업外
동기유형	가업 및 가족부양	1(4.0%)	6(14.3%)	9(15.5%)	4(7.8%)
	개인의 성공과 출세	7(28.0%)	11(26.2%)	9(15.5%)	10(19.6%)
	국가 및 사회공헌	3(12.0%)	12(28.6%)	18(31.0%)	17(33.3%)
	무응답	14(56.0%)	13(31.0%)	22(37.9%)	20(39.2%)

4) 학력 유형별 특성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출신성분 유형에 따른 학력별 특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유형인 경우는 제국대학(帝國大學) 비중이 절반 이상(56.0%)을 자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Ⅱ유형의 경우는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비율(33.3%)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경우보다 높다는 점이다. Ⅲ유형의 경우는 이것에 해당되는 기업가의 수가 가장 많은 유형(58명)으로 분류되었고, 학력별 분포가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갖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국대학과 고등전문학교 비율이 29.3%로 같게 나타났고, 초중등학교인 경우가 24.1%, 사립대학인 경우도 17.2%로 나타났으며, Ⅰ유형이나 Ⅳ유형과 같이 제국

대학 비율이 50%를 넘거나 Ⅱ유형과 같이 30%를 넘는 학력분포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Ⅳ유형의 경우도 역시 Ⅲ유형보다 조금 적은 51명이 해당되는데, 이 유형인 경우는 제국대학 비율이 4개 유형 중 가장 높고(56.9%), 초중등학교 비율(9.8%)은 4개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표 4〉 일본 기업가의 학력 유형별 특성

구 분		Ⅰ유형(n=25)	Ⅱ유형(n=42)	Ⅲ유형(n=58)	Ⅳ유형(n=51)
		봉건신분: 농업 부친직업: 상업	봉건신분: 농업 부친직업: 상업外	봉건신분: 농업外 부친직업: 상업	봉건신분: 농업外 부친직업: 상업外
학력 유형	초·중등	3(12.0%)	14(33.3%)	14(24.1%)	5(9.8%)
	제국대학	14(56.0%)	16(38.1%)	17(29.3%)	29(56.9%)
	전문학교	4(16.0%)	8(19.0%)	17(29.3%)	7(13.7%)
	사립대학	4(16.0%)	4(9.5%)	10(17.2%)	10(19.6%)

5) 경영자 유형별 특성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출신성분 유형별에 따른 경영자 유형의 특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유형인 경우는 다른 유형보다 전문경영자 비율(48.0%)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Ⅱ유형의 경우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경영자 비율(35.7%)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Ⅲ유형의 경우는 창업경영자나 전문경영자 유형(각각 36.2%)이 높게 나타났고, 가업계승자 비율도 다른 유형보다 높은 비율(13.8%)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Ⅳ유형의 경우는 가업계승자가 1명도 해당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 다른 유형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재벌경영자 비율(23.5%)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5〉 일본 기업가의 경영자 유형별 특성

구 분		Ⅰ유형(n=25)	Ⅱ유형(n=42)	Ⅲ유형(n=58)	Ⅳ유형(n=51)
		봉건신분: 농업 부친직업: 상업	봉건신분: 농업 부친직업: 상업外	봉건신분: 농업外 부친직업: 상업	봉건신분: 농업外 부친직업: 상업外
경영자유형	창업경영자	3(12.0%)	15(35.7%)	21(36.2%)	10(19.6%)
	전문경영자	12(48.0%)	16(38.1%)	21(36.2%)	19(37.3%)
	재벌경영자	3(5.0%)	6(14.3%)	6(10.3%)	12(23.5%)
	관료전직자	5(20.0%)	2(4.8%)	2(3.4%)	10(19.6%)
	가업계승자	2(8.0%)	3(7.1%)	8(13.8%)	-

V. 맺음말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鳥羽欽一郎(1988)의 목록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기업가 관련 연구를 기업가정신 등에 한정되어 다루는 연구 분야에서 향후 연구주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 기업가의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조상의 봉건신분은 농업 38.1%, 부친직업은 상업 47.2%, 가정상황은 빈곤 41.5%, 동기유형은 출세와 국가공헌 34.6%, 학력은 제국대학 43.2%, 경영자 유형은 전문경영자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둘째, 일본 기업가의 출생 시기를 살펴보면 Ⅰ유형인 경우는 제4기(1900~1909)에 출생한 경우(40.0%)가 높게 나타났으나, Ⅱ, Ⅳ유

형의 경우는 제3기(1890~1899)에 출생한 경우(각각 38.1%, 43.1%)가 다른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Ⅲ유형의 경우는 제2기(1880~1889)와 제3기(1890~1899)에 출생한 경우(각각 29.3%)가 다른 시기에 출생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일본 기업가의 가정 상황을 살펴보면 Ⅰ유형인 경우는 부유한 기업가(40.0%)가 빈곤한 기업가(3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Ⅱ, Ⅲ, Ⅳ유형인 경우는 빈곤한 경우(각각 57.1%, 41.4%, 33.0%)가 부유한 경우(각각 14.3%, 31.0%, 2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본 기업가의 창업 동기를 살펴보면 Ⅰ유형인 경우는 개인의 성공과 출세(28.0%)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Ⅱ, Ⅳ유형인 경우는 국가 및 사회공헌(각각 28.6%, 33.3%)이 다른 동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Ⅲ유형인 경우는 국가 및 사회공헌(31.0%)이 가업 및 가족부양(15.5%)이나 개인의 성공과 출세(15.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 기업가의 학력 유형을 살펴보면 Ⅰ, Ⅳ유형인 경우는 제국대학(帝國大學) 비중이 절반 이상(각각 56.0%, 56.9%)을 차지하는 특성을 가진 반면, Ⅱ유형은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비율(33.3%)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Ⅲ유형의 경우는 학력별 분포가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일본 기업가의 경영자 유형을 살펴보면 Ⅰ유형인 경우는 전문경영자 비율(48.0%)이 높은 것이 특징이지만, Ⅱ유형인 경우는 오히려 창업경영자 비율(35.7%)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Ⅲ유형은 창업경영자(36.2%)나 전문경영자(36.2%)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Ⅳ유형은 재벌경영자(23.5%)가 다른 유형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첫째, 일본 기업가의 출생 시기는 봉건신분이 농업이고 부친직업이 상업인 경우만 제4기(1900~1909)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경우에는 제2기(1880~1889)와 제3기(1890-1899)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기업가의 가정 상황은 봉건신분이 농업이고 부친직업이 상업인 경우만 가정상황이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경우에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본 기업가의 창업 동기는 봉건신분이 농업이고 부친직업이 상업인 경우만 성공과 출세를 위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경우에는 다양한 동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본 기업가의 학력은 봉건신분이 농업 外이고 부친직업이 상업인 경우만 학력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고, 나머지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 기업가의 경영자 유형은 봉건신분이 농업이고 부친직업이 상업인 경우만 전문경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기업가(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기업가들은 기업가의 출신성분에 따라 기업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둘째,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관료전직자가 기업을 경영한 경우도 다소 있었지만 대부분 기업가들이 전문경영자나 창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본은 기업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기업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측면에서 부모가 대기업주나 회사임원 등 비즈니스에 종사하였던 경우 비교적 높게 차지하였던 것은 부모를 통한 자산관리 및 경영능력의 습득이 비교적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분류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욱이 국내에서 발간된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경험적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시점에서 기존자료를 통하여 기업가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鳥羽欽一郎(1988)이 조사한 목록자료를 가지고 전개하였으므로 자료수집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국가간 사회적 배경의 비교를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시키면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7개의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의 특성에 대해서도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고,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보다 구조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전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본의 기업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국가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1864년에서 1916년 사이에 탄생한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을 대상으로 고찰을 시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본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밀화하면서 1916년 이후에 탄생한 기업가를 토대로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강신일 · 이창원. 1997. 『한국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성장』. 서울: 자유기업센터.

권남훈 · 윤충환 · 김운호 · 김은민. 1999. 『정보통신 중소기업가의 특성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영수. 1996. "기업가적 행동성향의 결정요인과 성과와의 관계". 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덕훈. 1998. "근대 일본기업가와 무사정신의 변용-일본무사의 기업가로의 전환과정". 『한일경상논집』 15(8). 한일경상학회.

이덕훈. 2003. "戰後 日本의 企業家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 『일본문화학보』 17. 한국일본문화학회.

한상복. 1997. "풍기(豊基) 직물산업 중소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행위". 『농촌사회』 제7집. 한국농촌사회학회.

麻生 誠. 1970. 『大學と人材育成』. 동경: 中央公論社刊.

滿成 博. 1960. 『ビジネス エリート』. 동경: 中央公論社刊.

石川健次郎. 1974. 「明治期における企業家活動の統計的觀察」. 『大阪大學·經濟學』 第23卷4號. 大阪大學經濟研究所.

鳥羽欽一郎. 1988. 『日本における企業家·經營者の研究』. 日本: 早稻田大學産業經營研究所.

淺野俊光. 1980. 「明治よりみた企業家の分析」. 『經營史學』 第14卷3號. 日本經營史學會.

靑沼吉松. 1965. 『日本の經營層』. 동경: 日本經濟新聞社刊.

Baumol, W. 1993.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nd the Structure of Payoff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Collins, O. F. & G. Moore. 1964. *The Enterprising Man, East lansing*. MI.

Cooper, A. C. & F. G. G. Gascon. 1995. "Entrepreneurs, Processes of Founding and New Firm Performance". In D. L. Sexton & J. D. Kasard(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PWS-KENT.

Cooper, A. C. & W. C. Dunkelberg. 1987. "Entrepreneurial Research : Old Questions, New Answers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

Cooper, A. C. 1985. "The Role of Incubator Organization in The Founding of Growth-Orient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I.

Drucker, P.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 Practice and Principles*. Harper and Row Publisher.

Hirshmeier. 1964. *The Origin of Entrepreneurship in Meizi Japan*(土屋喬雄·由井常彦訳. 1965. 『日本における企業者精神の生成』. 東洋経済新報社).

Kirzner, I. 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The University of Chicago.

Knight, F. 1921. *Risk, Uncertainly, and Profit*. Houghton and Mifflin.

Kourilsky, M. L. 1995. *Entrepreneurship Education :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Kau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Schumpeter, J. A. 1991.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tuart, R. W. & P. A. Abetti. 1987. "Start-up Ventures : Towards the Prediction off Early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Background of Japan Entrepreneur

KO Kwang Myong

Research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Japan entrepreneurs through the research data, "Personal history(personal statements, resume) of entrepreneur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time when Japan entrepreneurs were born ranged from 1900 to 1909. The ancestors of entrepreneurs were engaged in agriculture and their fathers were in commercial business(merchant). Second, the household condition of Japan entrepreneurs were good in case that their ancestors were engaged in agriculture and their father's occupation was a merchant. Third, as to the motivation of start-up company, Japan entrepreneurs started their business to succeed in life. The study showed that their ancestors were engaged in agriculture and the occupation of their father was merchant. Fourth,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Japan entrepreneurs was widely distributed when their ancestors were not in agriculture field and their father's job was a merchant. Fifth, in terms of the type of Japan businessmen, a lot of professional managers could be seen when their ancestor's social status was farmer and their father's occupation was a merchan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concluded that the type of Japan entrepreneurs is different from their family backgrounds. Also, this study provided an opportunity to newly recognize the social background of Japan entrepreneurs.

Key Words: Japanese, Entrepreneur, Social Background